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320억원 지급

부안군은 올해 9.302농가, 1만 4,793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20억원을 오는 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에는 공익직불금으로 표기되어 입금될 예정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3,341농가, 43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961농가 277억원 규모이다.

국비를 시작으로 이후 12월 중 도비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군비 직불금은 2026년 1월 초에 지급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지급되며 단가는 ha당 130만원으로 농가들에게 지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거리 캠페인

정읍시보건소가 '에이즈 예방은 제대로, 감염은 제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신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임을 알리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시 보건소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Y-TEEN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보건소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식이나 야수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 특히 국내 감염 사례의 99% 이상이 성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올바른 콘돔 사용이 감염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중앙부처와 손잡고 지역활력 제고

부안군-국토교통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체결

부안군은 2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범부처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상품·특산품 홍보 등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안경호 청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생발전과 공동협력에 약속했다.

익산국토청은 지역특산품 및 관광명



소는 물론 향후 기관 행사 개최, 고창 사립기부채 참여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에도 관심을 갖

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광상품·문화관광·특산품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9월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10월 새만금개발청, 12월 국토부와의 협약에 이어 추후 기업과도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살리기 상생 협력에 동참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전주684호' 식미평가

차세대 정읍 쌀로 성공 가능성 확인

정읍시가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벼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개발 중인 '전주684호'가 지역 대표 품종인 '신동진'과 비교해 밥맛이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세대 정읍 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 초기 5개의 유망한 후보 품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중 정읍의 기후와 토양 등 지역 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전주684호'를 최종 육성 품종으로 선별했다.

올해 시는 관내 4개소에서 실증 시험 재배를 통해 신품종의 재배 안정성을 검증한 데 이어, 실제 소비자가 느

끼는 밥맛을 확인하기 위한 식미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정읍시청 본청과 제2청사 구내식당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신동진' 쌀 대신 신품종 '전주684호'로 지은 밥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2청사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본청에서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품종 급식을 운영했으며,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인 18일과 27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10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 결과, '기존 밥맛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199명(4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밥맛이 좋다'는 긍정적 평가는 146명(35.6%)이었으며, '나쁘다'는 의견은 65명(15.9%)에 그쳤다.

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입맛이 오랜 기간 지역의 주력 품종이었던 '신동진'에 길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밥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품종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소비자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식미 평가 결과와 그동안 축적된 재배 안정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농촌진흥청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회를 거쳐 품종으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증받은 뒤,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농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경로당 찾아 난방상태 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2일 관내 경로당을 찾아 영하권 강추위 속 어르신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4일 고창 최저기온이 영하 4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되면서 한파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관내 경로당을 찾아 난방기 정상 작동여부와 보일러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 △창문 및 출입문 틈새 단열 상태, 외풍 차단 조치 여부 △소화기 등 소방 시설 점검, 비



상 연락망 및 행동 요령 게시 여부 △방한용품 비치·관리 상태도 살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파

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파 특보 발효 시 상시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활용, 한파 대비 건강 수칙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정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6회 애향대상 증정식’ 성료

고창군 애향본부, 오군호 · 배상수 · 고경숙씨 수상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백영종)가 2일 오전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제16회 애향대상 증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영종 본부장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도·군의원, 애향본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금년도 애향대상 수상자인 오군호씨는 고창군의회와 전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고창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부안고창축협장과 고창군 새마을운동지회장 재임 시에는 농어민 소득 증대와 청정한 고창 만들기 위해 힘쓴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배상수씨는 고창초 전문지도사로 재직하며 우수 선수 발굴에 힘써 2025년 소년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이끄는 성과를 거뒀으며, 고경숙씨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가 없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등 지역사



회 발전과 애향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아울러 2025년 행정고시 합격자인 이현승 씨에게도 애향특별상이 수여됐다.

애향본부는 해마다 애향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1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했다.

백영종 본부장은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건강한 흙 만들기와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인 체계적인 노력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2025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맞춤형 비료 공급과 토양 환경 개선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토양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평가는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함량·pH) △토양개량



제 공급 실적 △비료 품질관리 노력 △사업 홍보 및 점검 실적 △지자체 정책 협조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가린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철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올가을 내장산 단풍철 운영 성과를 되짚어보고 내년도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내장산 단풍철 행사질서 확립 평가보고회'를 열고, 올 가을 단풍철 운영을 돌아보며 개선사항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시청 내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

원사무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지난 단풍철 기간 추진했던 교통 관리와 안전 조치, 위생 점검, 화재 행위 단속 등 분야별 주요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성과를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단풍철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